「해외 동반진출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 도출」연구보고서(요약)

- □ 연구 목적 및 방법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및 내수시장 극복의 전략적 대안으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협력기업의 글로벌 역량 부족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 및 협력기업들의 어려움, 지원형태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해외 동반진출과 관련한 제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 응답기업 62社 대기업, 공공기관과 해외 동반진출 한 협력기업 25社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와 12社 해외 동반진출 성공사례 도출
- □ 실태조사 결과
- (대기업 72.6%가 해외 동반진출 추진)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72.6%가 현재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원을 받은 협력기업 수는 총 1.862개사로 나타났음
 - * 제조업이 전체의 63.1%인 1,17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유통업의 경우 1개사 평균 동반진출 협력기업이 73.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해외 동반진출) 대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목적으로는 협력기업의 성장을 통한 당사 제품품질 향상 (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기술, 품질 경쟁력 보유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동반성장을 통한 우수 부품의 안정적 확보) 대기업은 국내 협력 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우수 부품의 안정적/적기 확보를 주요한 성과로 제시하였으나, 현지업체 발굴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협력기업의 경우 대기업 납품을 통한 안정적 해외판로 개척이 가장 큰

1)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16. 7. 14 ~ 2016. 8. 22 (39일간)

·조사대상 :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기업 62개사, 해외 진출 협력기업 25개사

· 조사방법 : 주관식 설문을 통한 설문지 조사(이메일/전화조사 병행)

성과로 나타났으나, 해외납품처 개척을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협력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이후 연평균 매출액(생산액) 증가율이 12.8%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증감율도 4.2%로 증가함

○ (대기업 및 협력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격차 존재)

- 대기업들은 해외 동반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부지매입, 유통망 제공 등 국내 협력기업 정착 지원비용 부담(29%)이 가장 높으며 품질개선, 거래선 다변화 등 협력기업 자생력 제고노력 부족(24%) 하다고 응답
 - * 협력기업이 현지 생산량을 대기업에게 전량 납품하는 기업의 비율이 81%로 나타나해외 동반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진출 이후 협력기업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기업에게 해외 동반진출 활동은 부담감으로 다가 올 수 있는 것을 시사
- 협력기업들은 해외 진출이전에는 법률정보, 투자정보, 바이어 정보 등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 습득(50%)을 애로사항으로 답변하였으나 진출 이후에는 정보의 부족은 9%로 낮게 나타났음
 - * 진출이후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납품량 변동과 신규 거래처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협력기업들에게 지속적인 매출의 창출이 가장 큰 이슈로 분석됨

○ (진출 이전과 진출 이후 지원 활동 검토 필요)

- 해외 동반진출 이전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 우선 진출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기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경제적, 시장환경적 요인 등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을 추진
- 협력기업들은 해외의 법적,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외에 초기 정착 시 발생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협력기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경험, 역량,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활용한 지원보다는 시장 진출 및 참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음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기업의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 고충과 상담 등 소통활동이 필요
- □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대기업, 협력기업의 주체별 역할분담 필요
- 정부 :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산업별, 진출 시장별, 진출 시점별로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설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과제〉

해외동반진출 애로사항 지원정책 및 지원사항 정보 부족 - 법률, 투자, 바이어 등에 - 해외시장 동향 및 국가 (50%) 대한 정보 부족 별 법률 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유영 진 정보 노하우 및 - 현지정부 등과의 합동 투 - 해외공장 운영 노하우 부족 출 제공 자 설명회 개최 인력 부족 - 현지파견 전문인력 부족 0 - 현지 바이어 소개 등 (33%) 젉 마케팅 정보 제공 자금 부족 - 해외투자 자금 부족 (17%)- 해외 및 현지 전문인력 양 운영 외부 - 현지 정부의 정책 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역량 - 제조공정개선 등 기술 - 경기변동에 따른 대기업 납품 화경 변화 강화 지원 (56%)량 변동 진 판로 개척 출 어려움 - 신규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 0 (30%)-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후 정보 및 - 법률 등 정보 부족 무역보험, 저리금융 등 금 지원 - 대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부 융 지원 소통 부족 (14%) 족

- 대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협력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기업들을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모델관점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
- 협력기업 : 대기업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 비율이 81%가 넘지만 향후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기업들이 5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기업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하려는 의지와 자구적 노력의 강화가 필요
- □ 해외 동반진출 사례 조사 및 성공 요인
- 사례 조사 결과,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 유형은 1) 해외 판로 개척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3) 프로젝트 공동 수주, 4) 공동 투자 진출, 5) 해외 투자유치 지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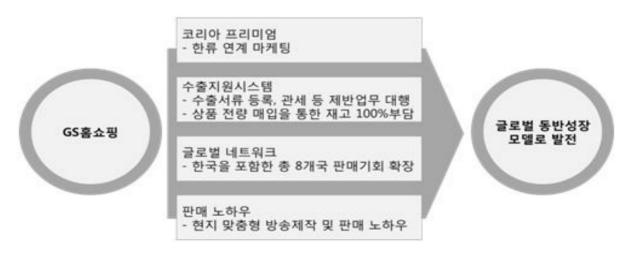
- 프로젝트 공동 수주, 공동 투자 진출 등 해외진출 협력기업 직접 지원에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연구개발 등 간접지원으로 지원 방향 다양화
- 해외 동반진출 성공사례를 통한 성공요인은 1) 진출 방법 및 진출 시기, 2) 시장 및 사업 아이템 선정, 3) 진출기업의 전략적 의지, 4) 구매 보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 동반진출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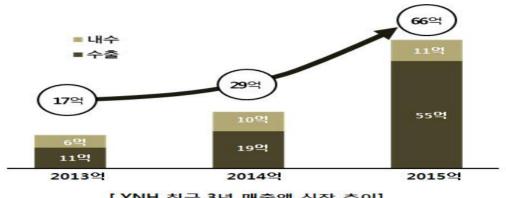
추진방향 진출유형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Win-Win 체계 구축	협력기업 경쟁력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진출 방법 및 시기	시장 및 사업 아이템	전략적 의지
연구개발 지원	시장 및 사업 아이템	전략적 의지	진출 방법 및 시기
프로젝트 공동 수주	시장 및 사업 아이템	진출 방법 및 시기	전략적 의지
공동 투자 진출	진출 방법 및 시기	구매 보증	시장 및 사업 아이템
해외 투자유치 지원	전략적 의지	전략적 의지	시장 및 사업 아이템

○ (해외 판로개척 지원) GS홈쇼핑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한 서류 등록, 통관 등 행정적 지원

〈GS홈쇼핑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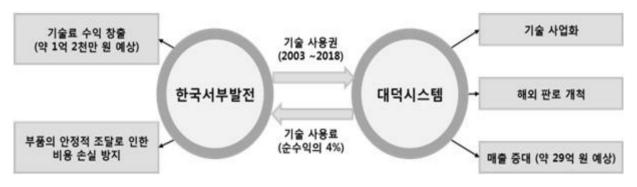


- 중소기업 Y&H의 검증된 제품을 전량 구매 후, 말레이시아, 태국 세관 통관부터 인허가, 판매까지 전담
- Y&H는 러시아를 포함한 총 10개국 수출 대상국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11억원이던 2015년 55억으로 증가하는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었음



- [YNH 최근 3년 매출액 신장 추이]
- ◇ 시사점 : 대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 확보를 통해 매출 확대로 귀결
- (연구개발 지원) 한국서부발전의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 한국서부발전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대덕시스템과 총 15년간 기술 사용 협약을 채결하여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 대덕시스템은 발전기 온라인 종합 감지시스템 제품 출시에 성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해외 발전소에 수출 성공 통해 2018년 까지 총 29억 원을 매출 증대 효과 기대

〈한국서부발전과 대덕시스템의 기술이전〉



◇ 시사점 :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여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기업은 안정적 부품 조달을 통한 비용 손실 방지와 더불어 기술 사용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함